

리얼 로드테스트

벤츠 '더 뉴 GLC 220d 4매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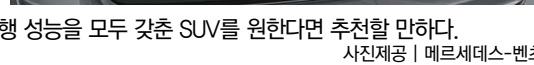
리얼로드테스트의 22번째 주인공은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LC 220d 4매틱'이다. 클래식한 오프로드 룩에 모던함을 더한 매력적인 디자인은 역시 벤츠답다. 거기에 첨단 안전 사양과 준중형 SUV급을 뛰어넘는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첨단 편의 사양을 대거 보강해 단숨에 수입 미드사이즈 SUV 시장을 평정했다. 프로 드라이버와 모터스포츠, 자동차 전문가가 각자의 시각에서 벤츠 '더 뉴 GLC 220d 4매틱' 모델을 입체 평가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미드사이즈 SUV 평정한 '부드러운 도시남'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LC 220d 4매틱'은 동급 최강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강력한 가속 성능과 탁월한 주행 안정성을 갖췄다. 주말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여유로움과 스포츠 주행 성능을 모두 갖춘 SUV를 원한다면 추천할 만하다. 사진제공 | 메르세데스-벤츠



■ UP&Down



1. 40.8kg.m이라는 강력한 토크가 선보이는 동급 최고의 가속력
2. 벤츠 특유의 4륜구동 방식이 만들어내는 뛰어난 안정감
3. 민첩하고 빠른 방향 전환과 안정적인 코너링



1. 다소 무거운 공차 중량으로 연비 면에서 아쉬워
2.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 다소 큰 충격
3. 가격 대비 실내 공간 크기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 경쟁 모델은?

1. BMW X3 20d



탄탄한 근육질의 역동적인 디자인을 갖췄다.

2. 0L 트윈파워 터보 디젤 엔진을 장착한 뉴 X3 20d는 최고출력 190마력과 최대토크 40.8kg·m의 힘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걸리는 시간은 8.1초다. 복합연비는 14.1km/l. 가격 6690만원.

2. 렉서스, NX300h



고급감과 정속성면에서 살펴보면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SUV인 NX 300h도 강력한 경쟁상대다. 상위 모델인 RX 수준의 넉넉한 실내 공간이 매력적이며, 가변식 4륜구동 시스템을 갖춰 주행 안정성도 뛰어나다. 복합 연비는 12.6km/l, 가격은 5680~6380만원이다.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LC 220d 4매틱' 제원표	
배기량	2143cc
연료	디젤
변속기	9G-TRONIC
최고출력	170마력(3000~4200rpm)
최대 토크	40.8kg.m(1400~2800rpm)
구동방식	풀타임 4륜구동
엔진	직렬4기통 디젤
연비	12.9km/l(복합연비)

--- Race Driving 한계주행 ---



프로레이서 장순호=카레이싱 경력 21년. '2010한국모터스포츠 대상' 올해의 드라이버상 브론즈벨벳 수상. '2010 제네시스 쿠페 챔피언십 클래스' 챔피언.

1985kg 공차중량 불구 가속력 동급 최강 최강 밸런스, 코너링때도 흔들림없는 주행

■ 장순호 프로레이서

벤츠 '더 뉴 GLC 220d 4매틱'은 공차중량이 1985kg로 무거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주행 중 순간 가속력은 동급 경쟁 차종과 비교할 때 최고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정차상태에서 풀 가속 시 풀타임 4륜 구동의 특성 때문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토크 40.8kg.m의 강한 힘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준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 가속할 때는 빠른 기어 변속에 마치 스포츠카를 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강력하다.

주행 중 순간 가속을 하면 반응 속도는 무난하고, 치고 나가는 가속 트랙션은 매우 만족스럽다. 페달을 밟아주는 장력도 너무 가볍지 않아 주행 시 강약 조절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가속 시 뒤쪽으로 향하는 무게하중 이동이 소프트한 서스펜션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아래로 눌러주고 그 덕분에 타이어 그림이 상층하여 주행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는 SUV차량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특성이므로 매우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코너링을 할 때 지상고가 높은 차량이 소프

트한 서스펜션을 장착하면 밸런스 맞추기가 어려워져 대부분 강한 언더스티어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데 앞뒤 서스펜션과 4륜 구동방식이 적절하게 매치가 되어서 매우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

제동능력을 보면 브레이크 페달이 부드럽고 깊게 밟혀서 조정성이 탁월하다. 또한 주행 중 급제동을 하면 소프트한 서스펜션 때문에 반응속도가 빠르고 노즈다운(앞바퀴는 정지하고 차체는 관성에 의해 앞 범퍼 부분이 내려가는 현상) 양이 적당하게 내려가 주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제동이 된다. 고속주행에서 급제동을 하여도 전혀 흔들림없이 잘 서주며 제동거리도 아주 짧은 편이다.

--- Sports Driving 스포츠주행 ---



김기홍=카트, 포뮬러 1800, 투어링카 등 다수의 자동차경주 대회 출전. 모터스포츠 전문 지피코리아(GPKOREA.COM) 편집장.

9단 변속기·최고출력 170마력·제로백 8.3초 조용한 주행...세단 못지않은 반응·방진 처리

■ 김기홍 지피코리아 편집장

'더 뉴 GLC 220d 4매틱'은 세단으로 치면 C클래스라고 볼 수 있다. 'GLA, GLC, GLE, GLS'로 이어지는 벤츠 SUV 라인업 중에서는 준중형급을 맡고 있다. 차체 크기로 보면 국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형 SUV 투싼, 스포티지와 비슷하지만 존재감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디자인이나 성능에서는 강한 마초 같은 느낌보

다는 부드러운 도시남의 이미지를 풍긴다. 굳이 비교하자면 남성성을 지닌 BMW X시리즈보다 아우디 Q시리즈에 가깝다.

실제 느껴지는 파워는 제원표보다 훨씬 넉넉하다. 배기량 2143cc 4기통 디젤 엔진에 9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됐고,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40.8kg·m의 성능으로 원하는 만큼 부드러운 성향의 구동력을 맞출 수 있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8.3초 만에 주파한다.

또한 세단 모델 못지않게 꼼꼼히 반응, 방진 처리가 잘 되어 있어 운전하는 동안 귀에 거슬리는 주행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SUV를 불편해 하지만 이 차량의 가장 맘에 드는 부분은 코

너링이었다. 휘청거리거나 무게중심이 운전자 허리까지 올라오는 기분 나쁜 느낌이 전혀 없었다. 이는 강철 스포팅과 가변식 댐핑 시스템을 포함한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펜션' 덕분이다.

거기다 4매틱(MATIC) 기술은 전륜과 후륜에 항상 45:55의 일정한 구동력을 줘서 빗길이나 빙판길에서도 더욱 안전한 코너링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 조향감도 부드러우면서 민첩해 주행 에코 모드, 스포츠모드 등에서 모두 편안하다. 1억원대 SUV와 비교해 뒤질 것이 없으면서도 가격은 6000만원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도 매력이다.

--- Normal Driving 일반주행 ---



원성열=스포츠동아 자동차담당 기자. 한국자동차경주회 C라이선스 드라이버

고급 디자인에 넓은 실내...6000만원대 가격 프리-세이프 플러스 등 안전사양 업그레이드

■ 원성열 스포츠동아 기자

벤츠는 '더 뉴 GLC'를 앞세워 올해 4월까지 지난해 SUV 판매량인 3000대를 훌쩍 넘겼다. 벤츠 전체 라인업 중에서는 6~7%를 오가던 SUV 점유율이 올 상반기에는 20%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GLC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뛰어난 상품성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벤츠 특유의 고급스러움과 넓고 세련된 디자인, 6000만원 중반대의 비교

적 합리적인 가격은 곧바로 중형 SUV 시장을 흔들었다.

실내 공간은 이전 모델인 GLK보다 휠베이스가 120mm, 전폭이 50mm 늘었다. 2열 좌석 각도를 뒤로 확 제쳐 뒷좌석 승객의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를 갖도록 유도한다. 1열보다 편안한 2열을 지닌 SUV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한국형 통합 내비게이션에 휴대폰 테더링을 통해 날씨와 뉴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능이 강화됐다. 8.4인치 디스플레이와 기존 변속기 위치에 자리한 터치패드 컨트롤러도 편리성을 더했다.

주행 성능 면에서는 코너링이 특히 발군이다. 코너에서 스티어링을 돌리면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며

그만큼 방향 전환도 빠르다. 4륜구동 방식을 채용한 덕분에 코너를 진입할 때 언더스티어 성향이 적고 네 바퀴에 골고루 강한 그림을 만들어주면서 코너링이 된다.

안전 사양도 벤츠답다. 보행자 인식 기능이 포함된 프리-세이프 브레이크, 능동형 사각 지대 어시스트, 능동형 차선 유지 어시스트, 프리-세이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프리-세이프 플러스(PRE-SAFE PLUS) 등 혁신적인 기능들이 장착되어 있다.

연비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더 뉴 GLC 4매틱의 공인연비는 12.9km/l이며, 실제 시내 주행연비는 10~11km/l을 기록했다. 가격은 6390~6710만원이다.

기업

문체부 '찾아가는 관광기념품 트럭'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맞춰 주요 관광지역에서 '찾아가는 기념품 트럭'(사진)을 운영하고 있다. 1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남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관광기념품 트럭'은 1톤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기념품 매장이다.

2015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작 '다용도 구리차통'과 2014년 대상작 '전통문양 진반침' 등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등 30점을 판매하고 있다. 트럭은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코리아 세일 페



스타 개막 공연과 연계해 코엑스 동편 광장에서 첫선을 보였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국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남산케이블카 입구로 장소를 옮겼고 10일과 11일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찾아가는 관광기념품 트럭을 찾아가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따르면 코엑스와 남산에서는 손거울과 휴대폰케이스 등 한국적 색채와 실용성을 겸한 제품의 인기가 높았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KT, 세계 최초 '5G 중계기' 시연 성공

KT는 중소기업과 협력해 빌딩 내 5G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5G 중계기'(사진) 시연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사용이 유력한 주파수 대역 밀리미터웨이브(mmWave)는 건물 벽 투과율이 낮은 특성 때문에 내부 공간과 지하 및 주차장 등에서 지상과 같은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5G 중계기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LTE 중계기가 설치된 지역에 별도의 신규 케이블을 설치없이 즉시 효율적인 실내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LTE의 경우 빌딩 내 동축 케이블을 설치해 LTE 신호를 전송하는 중계기 기



수 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축 케이블을 통해 5G 신호 전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KT는 5G 신호 주파수 대역을 변경해 동축 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5G 중계기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5G 인빌딩 품질과 커버리지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게 됐다.

김병근 기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연간 방문객 120만명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연간 12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16일 개관 2년을 맞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매달 평균 10만 여 명이 찾아, 지난 1년간 수도권 아쿠아리움 중 가장 많은 120만 명을 기록했다.

관람객이 증가한 데는 국내 아쿠아리움 가운데 최다인 시즌별 30개에 이르는 체험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 롯데 아쿠아리움은 계절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을 다르게 운영하고, '아쿠아캠프', '아쿠아 수의사', '나만의 수조 만들기' 등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 외에 제주수산연구소 등 국내 해양, 수산 연구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이들 기관에서 연구 중인 대형 철갑상어, 산천어 등을 전시해 방문객에게 국내 수산기술을 소개하는데도 적극 나섰다. 8월에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접박이 불법 '복돌이' 방류 사업을 진행하는 등 서식지 외 보전기관,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 기관으로서 해양생태계 보전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년 동안 아쿠아리움의 생물 종 240여 마리가 자연번식으로 늘어났는데, 5월 포유류 수달이 삼둥이를 낳아 화제가 됐다.

김재범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